

“금호타이어 상표권 못 쥐” 박삼구 승부수

매각 갈등 2R ‘인수 무산’ 전략... 불허 땀 배임 논란 가능성 노조도 매각 중단 촉구... 산은 ‘대출만기 연장 불허’ 할 수도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2라운드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후 첫 대결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던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박삼구 회장 ‘상표권 사용 불허’로 반격 노려=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상표권 사용 불허 선언은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매도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선결 요건 중 하나가 상표권 사용이기 때문이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채권단이든 아

무런 패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란 브랜드 가치를 보고 1조원에 가까운 거액을 써낸 더블스타로서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동기가 약해진다.

박 회장은 지난 18일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 선언 이전에 이미 상표권 사용 불허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했다. 앞서 금호산업을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 불허 방침을 천명했지만 실제 불허로 이어지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배임 문제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60

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호산업 영업이익(413억원)의 14.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사용료를 박 회장 자의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 ‘채권 만기 연장’ 카드로 되치기? =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재반격도 예상된다. 채권 만기 연장이란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채권 1조3000억원을 6월 말로 연장한 상황이다. 다른 만기의 채권까지 포함하면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호타이어는 6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을 한 번에 다 갚을 능력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타이어의 현금성자산은 1640억원이다.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262.34%, 2015년 말 314.02%, 지난해 말 321.85% 등으로 재무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영업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더블스타로 매각이 무산돼 ‘주인 찾기’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순순히 채권 만기를 연장해 줄 이유는 많지 않다.

채권 만기 연장 역시 매도 선결요건 중 하나다. 더블스타는 채권 만기를 5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자료는 더블스타의 상황계획과 상환능력이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 협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 만기 연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8일 또 다시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매각 중단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매각을 중단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으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매각이 계속 추진된다면 파업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이건희 9년 연속 한국 부자 1위

美 포브스誌... 효성 조현준 회장 46위·조현상 사장 49위

지난해 잇단 정치·외교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자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자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 따르면 이진희 삼성전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2억달러 늘어난 168억달러로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꺾여서 노트7의 리콜 사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뛰면서 이 회장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위는 67억달러를 보유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보유 재산이 지난해와 변동 없는 62억달러로 평가되며 3위에 올랐다.

권혁민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는 61억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권 대표의 재산 증가분은 12억달러로 이 회장이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5~6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 순위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과 조현상 효성 사장, 방준혁 넷마블 게임즈 의장 등 3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은 총자산 99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88% 올라, 49위를 기록하며 조현준(46위)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50위 안에 들었다.

또 지난해 순위에서 빠졌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올해 34위로 복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에서 포함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47위에서 38위로 상승했다.

포브스는 순위의 격변은 없었지만 상당수 부자들의 순자산이 줄어들었고 특히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증감을 기준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힌다고 밝혔다.

신익의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계약이 차질을 빚는 탓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54%가 하락했고 시가총액도 1년 전보다 45억 달러 줄어들었다. 임 회장의 재산은 56%가 줄어들었지만 올해 15위에 랭크되면서 부자 클럽에 머물 수 있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조환익 사장

‘2017 기업경영대상’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28일 ‘2017년 기업경영대상’을 받았다. 기업경영대상은 한국기업경영학회가 2001년부터 매년 산업과 경제발전이 공이 있는 국내외 기업인 1~2명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조 사장이 2012년부터 국내 최대의 공기업 전환을 이끌면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온 점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 사장은 “고품질·고효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기대와 응원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의 날’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문전성시

지난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보해양조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일제 시위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1분기 자영업자 17만명 늘었다

취업자 절반이 자영업... 광주·전남도 증가세

국내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자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 늘어났다. 예산정책처가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OECD 평균(14.8%) 대비 6.6%포인트(p) 높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2016년 하반기 취업자수 74만명 중 소매업(10.4%), 교육서비스업(9.2%) 음식점,주점업(8%) 등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고용률 상위지역을 꼽혔던 나주시(취업자수 5만3000명), 신안군(2만5000명)도 대부분 농림어업종사에 그쳐 여전히 취업 기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전체 취업자가 36만명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자영업에서 발생한 셈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자영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취업자는 31만8000명 늘어났는데 이중 16.4%인 5만2000명이 자영업에서 발생했다. 4분기에는 30만2000명 중 14만명, 비중은 46.3%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는 47.2%까지 상승했다.

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2005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화정엘리체 퍼스티지’ 40대 1 대박

서진종합건설 청약 1순위 마감... 8일 당첨자 발표

‘화정엘리체 퍼스티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대박에 성공했다.

서진종합건설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분양하는 화정엘리체 퍼스티지가 지난 26일 1순위 청약 결과 최고경쟁률 52.5대 1로 마감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1순위 접수 결과 총 7643건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대 1을 나타냈다. 전용 84㎡A가 52.5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용 110㎡가 40.6대1, 218㎡가 35.5대 1, 84㎡B가 14.5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된 관계자는 “화정엘리체 퍼스티지는 좋은 주거입지를 자랑하며 친환경 근린공원, 롯데아울렛, 월드컵경기장 등 뛰어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인근에 영주종합체육관, 풍암호수공원과 청소년 생태교육의 산실인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화정엘리체 퍼스티지는 자연에 둘러싸인 아파트로 설계돼 근린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을 내려다보는 탁트인 조망권과 광주 랜드마크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110㎡ 특화설계와 4베이 4룸 설계, 아일랜드 주방, 대형팬트리 등 공간특화설계와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이뤄졌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8일, 정당계약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1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전매 가능하고, 2차 계약 후 무제한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73-440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5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6	20	33	40	43	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70,358,834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7,407,177	75
3	5개 숫자일치				1,377,966	2,036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477
5	3개 숫자일치				5,000	1,646,451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

경주일보 65 since 1952